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94호 【루계 제26168호】 주체107(2018)년 10월 21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전면적인 총공세로 뜻깊은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자

증산돌격운동에로 추동하는 위력한 화선식정치사업

함경북도안의 당조직들에서

함경북도안의 당조직들이 당초급선전일군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대중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고무추동하는 진격의 나팔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천수만에 달하는 사상일군들만 잘 준비되여있어도 강력한 정예군단들을 편성할수 있으며 이 력량이면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들이 사상공세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당초급선전일군들이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동활동, 선전활동을 전투적으로 박력있게 벌려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들의 강습과 경험발표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모임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능력있는 일군들이 아래단위들의 실태를 료해한데 기초하여 힘있는 사상공세를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대책들을 강습계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범적인 당초급선전일군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자료적으로 생동하게 발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참가자들모두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자기들이 지니고있는 임무를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초급선전일군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고있는 당일군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 군, 련합기업소 당조직들에서는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일터마다에서 사상공세의 포성이 힘있게 울려퍼지도록 하고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보여주기, 경험발표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특히 당초급선전일군들이 위대성교양에 모를 박고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경제선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당조직들에서 당초급선전일군들을 발동하여 생산자대중에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새겨주면서 그들이 증산돌격운동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산소열법용광로직장 당조직에서는 선동원들이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가슴마다에 한몸이 그대로 원료가 되고 연료가 되여서라도 주체철생산의 동음을 굳건히 지켜갈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깊이 새겨주도록 하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로천분광산 당조직에서는 선동원들을 발동하여 광부들이 굴지의 철광석생산기지를 나라의 보배광산, 금속공업의 생명선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믿음에 쇠돌증산으로 화답해나섰던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대를 이어 빛내이도록 하는 경제선동을 화선식으로 벌려나갔다.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태산탄광 당조직의 지도밑에 선동원들은 탄부들속에 깊이 들어가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탄광개발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널리 해설선전하면서 그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송평건설사업소의 선동원들은 건설자들이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건설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낼 열의에 넘쳐 총돌격전을 드세게 벌려나가도록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시, 군당조직들에서도 초급선전일군들과의 사업에 많은 품을 들이고있다.

청진시, 길주군, 명천군을 비롯한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산하초급당조직들에서 선동원들에게 선동사업에 필요한 방송기재들을 마련해주는것과 함께 선동원의 날 운영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그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게 하고있다.

특히 선동원들의 사업경험을 서로 교환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선동활동이 실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있는 정치사업, 참신한 교양사업으로 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료해하고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자기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고있다.

도안의 당조직들에서 진행하고있는 힘있는 사상공세는 뜻깊은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비상히 앙양시키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은산탐사기계공장건설 적극 추진

은산탐사기계공장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국가자원개발성 일군들과 각지 탐사부문에서 달려온 돌격대원들의 투쟁에 의하여 공장건설은 65%계선을 넘어섰다.

수십동에 수백세대의 살림집건설은 결속단계에 들어섰으며 공공건물건설에서도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질탐사부문에서는 탐사설비생산기지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리고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설비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합니다.》

성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지질탐사사업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고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탐사설비생산기지를 높은 수준에서 꾸릴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공장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성에서는 공사지휘부를 꾸리고 건설력량을 편성한데 이어 짧은 기간에 완공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성의 책임일군들은 수시로 현지에 나가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일일이 알아보면서 세멘트와 환강, 지붕보제작용자재 등을 제때에 보장하는데 힘을 넣었다.

지휘부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이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도록 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게였다. 이와 함께 성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자체의 세멘트생산기지를 꾸리고 그 운영을 짜고드는 한편 설비들을 제작하여 보도블로크와 각종 흙판들도 생산보장하게 하였다.

지휘부에서는 성과의 련계밑에 굴착기, 삼차, 중량화물자동차를 비롯한 륜전기재를 동원하여 8만여㎥의 성토작업을 최단기간에 해낸데 이어 건축공사를 박력있게 내밀고있다.

황해남도탐사관리국의 일군들이 건설자재보장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다.

그에 고무된 돌격대원들은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건축공사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은산탐사기계공장과 평안남도, 평안북도탐사관리국의 돌격대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부족한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덩지큰 건설대상들을 일정계획대로 밀고나가고있다.

지휘부에서는 종업원살림집건설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휘부일군들은 수십동에 수백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을 일떠세워야 하는데 맞게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성에서는 수만㎥의 모래와 흙석보장을 원만히 따라세워 살림집건설이 힘있게 진척될수 있게 하였다.

각 도탐사관리국과 은산탐사기계공장, 중앙광물자원조사단, 중앙물리탐사단의 돌격대원들은 건설물들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헌신의 구슬땀을 바치였다.

그리하여 종업원살림집건설은 기본적으로 결속되고 살림집주변에 새 품종의 잔디심기와 보도블로크깔기가 마감단계에 들어섰으며 원림록화사업에서도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공공건물건설을 맡은 돌격대원들은 블로크생산을 앞세우면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성에서는 생산건물들이 일떠서는데 따라 설비운반 및 설치작업을 하여 탐사설비생산을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고있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건설건재공업성, 림업성을 비롯한 여러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세멘트, 목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보장해주었다.

성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높이 공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특파기자 오철훈

고온공기연소안정화공정확립 마감단계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고온공기연소안정화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고온공기연소안정화공정을 확립하는것은 연소안정화에 많이 쓰던 중유에 의존하지 않고 보이라와 타빈들의 효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불비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지난 기간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발전설비들의 기술개조를 다그쳐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것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내밀었다.

특히 발전설비들의 효률을 높이고 전력생산원가를 낮추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고온공기연소안정화장치를 제작설치할것을 발기하고 이 사업에 달라붙었다.

전력공업성의 일군들은 이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기술자들을 현지에 파견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 해결해주었다.

련합기업소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모퉁이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주도세밀한 조직사업으로 새로운 공정확립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련합기업소기술자들은 전력공업성 전력공업연구소 기술일군들의 방조밑에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한편 현장로동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이 과정에 설계실과 열생산1직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보조미분탄저장통을 합리적으로 제작하였으며 새 제품개발실의 기술자들은 원료들의 배합비를 새롭게 하여 성능이 좋은 내화벽돌을 자체로 만들어냈다.

공무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맹렬한 창조투쟁, 돌격투쟁으로 설비제작에 필요한 중요부속품가공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설비제작이 끝나는족족 설치작업에 달라붙은 열생산1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하루작업을 마친 로동자들도 공사장에 달려나와 헌신의 구슬땀을 흘리며 로쌓기작업을 도와나섰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수십종에 달하는 설비제작과 설치작업이 끝났다.

지금 련합기업소에서는 고온공기연소안정화공정을 하루빨리 확립하고 시운전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김학철

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서평양기관차대에서—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할 일념안고 기관차수리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능력이 큰 압축기생산전투에 박차를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화학비료생산에 필요한 능력이 큰 압축기생산전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이것이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입니다.》

대규모화학비료생산기지에 능력이 큰 압축기들을 보내주는것은 비료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압축기생산과제를 기어이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압축기생산전투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사상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현장들마다에 힘있는 구호와 표어, 속보들이 나붙고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참모부의 일군들은 능력이 큰 압축기생산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제기있게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압축기생산을 빠른 시일안에 질적으로 끝낼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대중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방대한 압축기생산과제를 기한전에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공정으로부터 마감공정에 이르기까지 매 공정간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능력이 큰 압축기생산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룡성기계설계연구소의 설계가들은 압축기설계를 완성하기 위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다른 대상설비설계로 하여 력량이 분산되고 조건도 불리하였지만 이들은 설계도면의 점 하나, 선 하나에도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담아가며 짧은 기간내에 설계를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소재부문에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혁신의 앞장에는 선군주철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서있다.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싸우는 고지에 란알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소재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들은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교대당 쇠물량을 늘이고 합리적인 조형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적앙양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1주강직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용해와 단조시간을 훨씬 단축하면서 예정기일보다 앞당겨 소재생산을 내밀고있다.

이곳 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보름은 걸려야 하던 소재생산을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가공부문에서 낮에 밤을 이어가며 치렬한 생산돌격전이 벌어지고있다.

1기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압축기부분품가공과 조립에서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소재의 특성에 맞는 작업방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가공속도를 높이고 조립시간도 훨씬 단축하고있다.

대형공작기계직장의 일군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을 압축기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보고 어기에 힘을 넣고있다. 직장의 로동자들은 지구와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작업방법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부분품가공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무직장을 비롯한 보장부문에서도 지구, 장비들과 부속품생산을 힘있게 내밀어 압축기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화학비료생산에 이바지할 능력이 큰 압축기생산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룡성의 로동계급의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에 떠받들려 성과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리호성

년말전투성과 계속 확대

각 지 축산기지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각지 축산기지들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일터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년말전투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축산기지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면서 대중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축산기지종업원들도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집짐승사양관리와 여러가지 먹이생산 등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구성탄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더욱 분발하고있다.

그들은 구성시의 일군들, 근로자들과 힘을 합쳐 고리형순환생산체계확립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유기질복합비료공장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한편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과학기술을 앞세워 알곡먹이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면서 축산물생산을 늘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축산기지들에서

그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먹이보장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람조류단백먹이, 토착미생물에 의한 발효먹이, 콘단백풀로 만든 풀절임 등을 대대적으로 리용하면서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특히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체로 생산한 정향복합균, 강성88호균으로 가금배설물을 발효처리하여 집짐승기르기에서 큰 은이 나도록 하고있다.

공장에서는 가금배설물을 발효처리한 먹이를 리용하여 알곡먹이를 전혀 쓰지 않고도 수백마리의 종축돼지를 기르면서 축산물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함주돼지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그들은 축산업발전의 결정적담보인 먹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큰 힘을 넣고있다.

특히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신양2》호복합균으로 먹이를 발효처리하여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고있다.

첨가제를 리용하면 지난 시기보다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축산물생산을 늘일수 있는 이 복합균리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종업원들이 더욱 분발하고있다.

그들은 먹이문제해결이자 축산물생산이라는 관점밑에 종균확보사업에 큰 힘을 넣는것과 함께 비알곡먹이원천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근기있게 내밀고있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종전보다 많은 알곡먹이를 절약하면서도 돼지의 증체률을 높이고있다.

한편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두철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고기가공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군민룡천돼지공장을 비롯한 각지의 축산기지일군들과 종업원들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에 높은 축산물생산성과로 화답할 일념안고 한결같이 떨쳐나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황철민

전력증산투쟁으로 들끓는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서 전력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년간 전력생산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하기 위하여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발전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년간 전력생산계획은 89%계선을 훨씬 넘어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기술개건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률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전력생산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발전소를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로 일떠세우시려 정력적인 현지지도를 진행하신 사적이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소전력생산자들이 올해 전력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발전소일군들은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혁신과 비약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발전소참모부에서는 발전설비들에 대한 관리에 힘을 넣는것과 함께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속에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전력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1호, 2호, 3호발전소들에서는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발전설비들에 대한 정비보수와 기술개조를 다그치고있다. 또한 고수위, 고효률운전을 위한 합리적인 부하분배프로그람을 새로 도입한데 이어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전력생산자들은 발전설비들의 교대점검, 업간점검을 책임적으로 하여 매일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구조물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전력증산투쟁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2호발전소 락석방지용웅벽공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전력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공무작업반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합리적인 가공방법들을 받아들여 전력생산을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맞게 발전소당조직에서는 긍정적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뜻깊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해 분발해나선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력증산의 동음은 높이 울리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자력갱생의 고귀한 투쟁전통을 빛내여주시며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 깃든 령도의 자욱을 더듬어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경제건설대진군의 힘찬 포성이 강산을 진감하고 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거세찬 진군으로 격동의 시대를 빛내여가는 장엄한 대오의 전렬에는 위대한 당의 품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성장한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미더운 로동계급도 서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주체104(2015)년 10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아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강력의 귀중한 창조물이 태어난데 대하여 못내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며 당의 령도를 진심으로 받들고 우리식의 새로운 지하전동차를 기어이 만들어내고야만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과 같은 주체혁명의 핵심력량이 있어 우리의 10월 10일, 로동당생일이 더욱 빛나는것이라는 최상최대의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볼수록 이곳 로동계급이 전세대 로동계급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하시며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절세위인의 하늘같은 믿음과 은혜로운 사랑이 숭엄한 격정속에 어려온다.

주체104(2015)년 7월 어느날이였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기업소책임일군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한말음에 말려가 안기고싶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에 모신 기쁨은 이를데 없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기업소에서 눈에 띄는 생산성과를 이룩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일군들은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마음을 사려깊이 헤아려주시며 기업소의 문화회관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문화회관에는 로동계급을 나라의 맏아들로 내세워주시며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주체61(1972)년 12월 12일 이 문화회관에서 최고인민회의와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여 추천된 대의원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해주시였으며 주체55(1966)년 12월 31일에는 이곳 기업소로동자들의 설맞이모임에도 참석해주시였다.

뜨거운 감회속에 이에 대하여 추억깊이 돌이켜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9년 갈마극장에서 기업소기동예술선동대공연을 보아주시고 공연을 아주 잘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신데 대해서도 회억하시였다.

어려해가 흘러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속에서조차 희미해진 력사의 그날을 어제일처럼 생동하게 그려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은 북받치는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가 걸어온 행로에는 그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새겨져있었던가.

건국의 첫 시기 이곳 로동계급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형편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살고 일하며 투쟁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의 로동계급은 응당 대중의 선두에서서 무장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는 공장로동계급의 무한대한 힘의 원천으로, 자력갱생의 불씨로 되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새 조국건설시기는 물론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도 나라의 동맥을 굳건히 지켜왔으며 전후의 재더미속에서 화사람같이 떨쳐나서 보란듯이 공장을 일떠세우고 그후 짧은 기간에 전기기관차를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의 힘과 지혜, 기술로 만든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것이 너무도 기쁘고 대견하시여 현지에 나오시여 공장로동계급을 축하해주시고 기관차의 이름도 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지금도 기적소리높이 조국의 두줄기 궤도를 달리는 《붉은기》호전기기관차를 볼 때마다 이곳 로동계급에게 자력갱생의 넋을 심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업적을 깊이 새겨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10여년전 1월에 있었던 감동깊은 이야기는 또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것인가.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당시)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나라의 철도를 현대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려 견인력이 크고 문화적이며 쓸모있는 현대적인 전기기관차와 객차들을 만들어내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뜨겁게 헤아려주시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제때에 해내는 절대관철의 투사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충실한 로동계급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 혁명은 거세찬 비약의 한길을 따라 승승장구하고있다고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일러주신 위대한 장군님.

이날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이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사고방식과 사업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몇해전에는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국가과학원을 찾았는데 올해에는 철도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고무해주려고 이 공장부터 찾아왔다고, 모두 일들을 잘하라고 뜨겁게 당부하시던 그날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지금도 이곳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의 손길이 력력히 어려있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에 대한 굳은 믿음을 표시하시며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나가도록 적극 고무해주시는것이였다.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실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기간 기업소로동계급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기기관차와 객차를 비롯한 차량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함으로써 우리 혁명을 추동하고 전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높은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다.

혁명사적물보존실에 들리시여서는 기업소에서 혁명사적교양실을 잘 꾸려놓고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기업소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많이 깃들어있는 단위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에서 선봉대, 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대와 믿음은 정녕 끝이 없었다.

그 한없는 믿음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붉은기》호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던 그 나날처럼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총진군대오의 앞장에서 달려나갈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었다.

아직은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기업소로동계급이였다.

하지만 자기들을 그토록 믿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르며 일군들은 자신들의 어깨에 지워져있는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과학기술보급실에도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업소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운영하여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우리 당에 충실한 철도부문의 로동계급을 나라의 맏아들로동계급으로 내세우려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맏아들로동계급!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또 어디에 있으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로동계급이 70년동안 높은 정신력을 가지고 당을 받들어왔다고 하시며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혁명적본때와 당에 대한 충정심, 현대과학기술이 결합되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으며 최첨단을 돌파할수 있다고 힘있게 고무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만들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산악같이 일떠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지하전동차를 하루빨리 만들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의 빛나는 전통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아주시는 뜻깊은 10월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였던가.

차체의 벽면을 손수 쓸어보시고 지하전동차에 오르시여 의자에도 앉아보시며 더 훌륭하게 완성하기 위한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시종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로부터 얼마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하전동차의 시운전을 친히 보아주시기 위해 깊은 밤 현지에 나오실줄 그 누가 알았으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자체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타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지하전동차를 만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 힘, 우리 기술로 만들었기때문이라고, 우리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지하전동차를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본태가 살아있고 자기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식 지하전동차생산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기의것이 제일이고 자강력이 제일이라고, 이번에 우리 힘과 기술로 지하전동차를 만든것은 우리의 자강력을 키우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자기의것이 제일이고 자강력이 제일이다!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속에 지하전동차 1호를 만들기 위한 투쟁과정에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체득한 진리이다.

지금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깊이 새겨주신 이 고귀한 진리를 뼈에 새기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경제건설대진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휘황찬란한 래일을 확신하며 기세드높이 나아가는 철도부문 로동계급의 심장의 목소리가 충정의 기적소리인양 메아리가 되여 울려퍼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어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빛나는 전통 영원하리라!

본사기자 김 일 권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철도성혁명사적관에서— 본사기자 한 광 명 찍음

철도전기화의 첫 기슭에서

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의 창조자, 향유자로서의 전환적인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주체37(1948)년 9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지덕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각 책임일군들과 교통성(당시)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집무실에서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철도전기화문제를 좀 토론하자고 동무들을 찾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철도는 건국사업과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한 다음 첫 큰 공사로서 일부 구간의 철도를 전기화하기로 계획하였다. 우리 나라는 전력자원이 풍부하므로 우리는 앞으로 나라의 철도를 다 전기화할수 있다. …

그이의 뜻밖의 말씀에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수십년간에 걸치는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로 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는 매우 빈약한 상태였으며 더우기 철도를 전기화해본 경험도 기술도 없었다.

그런데 수십년 지어 수백년의 공업발전력사를 자랑하는 몇개 나라들에서나 볼수 있는 철도전기화를 창건을 선포한지 불과 며칠밖에 안되는 우리 공화국의 계획으로 선언하시니 그럴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질풍같이 내달릴 전기기관차들을 상상해보면서도 일군들은 그것이 꿈만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희망과 기대, 의혹이 가득 어려있는 일군들의 얼굴을 밝은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형편에서는 철도전기화공사를 한꺼번에 다 할수 없기때문에 구배가 심하여 철도수송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개고-고인간, 양덕-천성간 철도전기화공사를 먼저 하자고 하시면서 일군들의 의향을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동무들이 반대없다면 철도전기화공사를 시작해보자고 하시면서 확신에 넘친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철도전기화공사는 공화국이 창건되여 처음으로 진행하는 중요건설대상이라는 의미에서도 정치, 경제적으로 의의가 대단히 큽니다. 이 철도전기화공사가 완공되면 그것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되여 인민들에게 베푸는 첫 선물로 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베푸는 첫 선물!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은 일군들의 흉벽을 세차게 울리였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론 지금 기술과 경험, 자재를 비롯한 모든것이 부족한 형편에서 자체로 철도를 전기화한다는것은 매우 힘들다고, 그러나 우리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반드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철도전기화를 하여야 하며 일제에 의하여 파괴된 철도운수를 급속히 복구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개고-고인간, 양덕-천성간 철도전기화공사를 오는 12월말까지 완공함으로써 주권을 잡은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공화국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한다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일군들은 모두가 일어서서 열광적인 박수로 우리 공화국의 첫 중요건설대상계획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금과 함께 전국의 기술자들과 자재설비들을 이 공사에 집중시키도록 친히 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

공사정형을 료해하시면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당시로서는 방대한 공사였던 철도전기화공사가 12월말에 이르러 완공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진행된 우리 나라에서의 첫 철도전기화공사, 정녕 이것은 공화국이 창건되여 우리 인민들에게 베푼 첫 선물이였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이 총폭발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력갱생의 철리를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준 뜻깊은 계기였다.

본사기자 채 희 성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경제건설대진군의 중요한 요구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관철하자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증산돌격전을 과감히 벌리는것과 함께 최대한으로 절약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인구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막대한 소비로 하여 사람들의 생존과 활동에 리용되던 자원들이 지구상에서 하나둘 고갈되여가고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자원의 탐색과 함께 이미 있는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절약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는 더욱더 부각되고있다.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우리 나라는 령토가 크지 않은것으로 하여 자원량이 제한되여있다.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물려주자면 절약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최대한으로 절약하는것, 바로 여기에 참된 애국이 있고 숭고한 후대사랑이 있다.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 생산활성화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 원료와 설비문제를 풀고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로력과 자재, 원료와 설비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는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이다. 우리 경제의 생산잠재력은 대단하며 동원하여 리용할수 있는 예비는 많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공장, 기업소들에는 쓰지 않고 사장되여있는 설비와 부속품, 자재들이 적지 않으며 회수리용할수 있는 낡은 자재, 폐기폐설물도 많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물자와 로력, 자금을 1%만 절약하여도 국가적으로는 방대한 량에 달하며 사회주의건설에 커다란 보탬으로 된다.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내부예비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시킨다면 있는 자재, 있는 설비, 있는 로력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이 생산할수 있다.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자립경제의 전도와 직결된 절박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철, 주체비료생산을 비롯하여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강물도 계속 쓰면 줄어든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우리 나라에 흔한 자원과 원천이라고 해도 효과적으로 리용하지 않고 되는대로 써버린다면 얼마 못가서 바닥이 나고만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품들여 마련한 자립경제가 그 위력을 발휘할수 없게 된다.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가 절약형의 방향으로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날 세계의 경제발전추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자면 절약형생산체계와 방법을 널리 도입하고 자원의 회수리용 및 수매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지금 온 나라에는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 물절약형, 토지절약형 등 여러가지 절약형생산체계와 방법들을 적극 연구도입하기 위한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서는 우리의 설계와 기술로 에네르기절약형, 로력절약형생산공정을 높은 수준에서 갖추어놓았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이 공장에서처럼 생산공정들을 절약형구조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 때 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다음으로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설비와 자재, 자금을 절약하지 않고 마구 랑비하여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인민들의 이러한 수요는 생산 하나만으로는 충족시킬수 없다. 생산과 함께 절약투쟁을 동시에 밀고나가야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도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고 그들에게 유족한 생활도 안겨줄수 있다.

하나를 절약하는것은 둘을 버는것이나 같다는 말이 있다. 례를 들어 우리가 강철 1t을 절약하였다고 할 때 그것은 그만한 량의 강철을 더 생산한것과 맞먹는것으로 된다. 이런 점에서는 절약하는것이 생산을 늘이는것보다 더 실리적이라고 볼수 있다. 때문에 절약이자 생산이며 증산이라고 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절약은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물질적부와 로동의 랑비를 막고 그것을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라고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생산되는 제품과 나라의 재부를 극력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생산과 건설을 더 많이 하고 인민생활을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시킬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절약사업은 곧 인민들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자기자신을 위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절약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참다운 애국자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절약사업은 단순히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 원료를 최대한으로 적게 쓰기 위한 경제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열렬한 애국자들로 키우자는데 우리 당이 절약투쟁에 대하여 강조하는 중요한 리유의 하나가 있다.

애국심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생활속에서 발현되는 구체적인 사상감정이다. 누가 알아주건말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 아껴쓰는것이 애국이며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할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의학과학기술교류소 소장 박사 림창호동무는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간직한 참된 애국자이다. 그가 건물아래에는 생산현장을, 옷공간에는 사무실들을 배치하여 제한된 부지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토지절약형건물건설을 발기할수 있은것도, 에네르기를 극력 절약하면서 난방과 건조공정에 필요한 열을 다같이 보장하게 된 보이라를 기발하게 착상할수 있은것도 순결한 애국심의 발현이다. 그에게 남보다 시간적여유가 많아서 또 맡겨진 긴박한 과학기술과제가 없어서 이런 일을 해놓은것은 결코 아니다. 무슨 사업을 하나 설계하고 창조물을 하나 일떠세워도 국가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는 애국심이 있었기에 이렇듯 작고도 훌륭한 일을 해놓을수 있었으며 조국과 인민이 키억하는 참된 과학자로,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값높은 삶을 빛내여나가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사람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보석과도 같은 애국의 마음을 지니고 절약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누구나 한W의 전기, 한g의 세멘트, 한조각의 나무, 한개의 못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극력 아껴쓰며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려는 애국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울 때 내 조국의 재부는 더욱더 늘어나게 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여나갈수 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현시기 절약투쟁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이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감으로써 나라의 부강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명 주 혁

영광의 기념사진에 어린 크나큰 믿음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무쇠마치로 짓부시며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온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전렬에는 황철의 로동계급도 있다.

조국번영의 길에 강철기둥을 높이도 쌓아온 황철의 로동계급, 그 빛나는 성장의 갈피마다에는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력사가 뜨겁게 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자신을 믿듯이 우리 인민을 믿고 승리할 우리 조국의 앞날을 굳게 믿으시였기에 언제나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안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걸고 또 걸으시였습니다.》

주체99(2010)년 2월 어느날 황철의 로동계급은 또다시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영광을 지니였다.

생산현장을 한눈에 볼수 있는 생산종합지휘실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시화면을 통하여 초고전력전기로의 출강장면을 보아주시였다.

초고전력전기로의 위력을 시위하듯 천갈래, 만갈래의 불꽃을 날리며 쏟아져내리는 주홍빛쇠물폭포의 장쾌한 모습을 보시며 못내 기뻐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철직장으로 향하시였다.

그이께서 용해장앞에 다가서시자 일군들은 당황해졌다.

이미 출강을 하였다지만 아직 전기로안의 온도는 천수백℃에 달하였고 로주변도 숨막힐 정도로 뜨거웠던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로앞으로 다가가시여 인사를 올리는 용해공들을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안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며 강철직장이 지난해에 왔을 때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초고전력전기로가 이제야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세차게 고동쳤다.

고난의 행군시기 원쑤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의 후과로 주저앉다싶이 되였던 황철,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고난의 흔적을 가셔버리고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높은 수준의 송변전소와 초고전력전기로가 새로 일떠섬으로써 이전시기에 비해 강철생산량은 몇배나 더 늘어나고 용해시간도 훨씬 단축되였으니 이것은 말그대로 황철의 기적이고 전변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초고전력전기로를 배경으로 용해공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러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력으로 만난을 헤쳐나감으로써 철강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런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이 련합기업소가 용을 쓰게 되고 눈부신 전변을 가져오게 된것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력이다. 금속공장들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를 제일 많이 받은 기업소는 아마 황철일것이다. 우리 당이 내세운 금속공업의 주체화로선의 자랑찬 승리는 수령님께서 쌓으신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황철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기대가 매우 크다. 철이 있어야 기계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사탕도 나온다. …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황철로동계급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켰다.

나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전후복구건설에서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총진군길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높이 떨치리라고 굳게 믿는다.

정녕 그것은 황철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이고 사랑이였다. 우리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의 힘과 지혜, 열정을 총폭발시켜 하루빨리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절세위인의 높으신 뜻이 어린 불같은 호소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께서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며 끝없이 안겨주신 믿음과 사랑은 오늘도 황철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며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떠밀어주고있다.

본사기자